

## 중세국어의 ‘(으/으)롯’과 ‘(으/으)룩’

하귀녀\*

1. 중세국어에는 아래 (1), (2)와 같은 예가 있는데 이들에서 볼 수 있는 ‘(으/으)롯’과 ‘(으/으)룩’은 ‘(으/으)로’와 ‘ㅅ’, ‘(으/으)로’와 ‘ㄱ’으로 분석되어 ‘(으/으)로’는 구격조사, ‘ㅅ’은 속격조사, ‘ㄱ’은 첨사라고 이해되어 왔다.

(1) 六塵<sup>로</sup>롯 아렌 다 알폴 例<sup>로</sup>하야 아롤띠니라[六塵<sup>로</sup>니<sup>로</sup>는 皆例<sup>로</sup>前知니라](원각 상이지이 142)

(2) 받님자히 과<sup>로</sup>하야 중<sup>로</sup>싱도 孝道<sup>로</sup>홀써 일<sup>로</sup>룩 後<sup>로</sup>에 疑心<sup>로</sup> 마오 가져가라 하니(월석 2:13)

그러나 이들의 출현 환경이 동일하다는 점은 미처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점이 인식되었다면 ‘(으/으)롯’과 ‘(으/으)룩’을 별개로 다루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었을 법도 한데 그런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는 기존 논의들과는 달리 ‘(으/으)롯’과 ‘(으/으)룩’이 참여하는 구성 안에서 이들의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먼저 수적으로 우세한 ‘(으/으)롯’의 예를 통해 이들이 이루고 있는 구성 전체의 성격을 파악한 후에 각각의 구성 요소를 살핀다. 그리고 나서 ‘(으/

---

\* 박사과정 수료

으)룩'의 예를 살피고 이후에 구성의 성격과 관련하여 '(으/으)룩'과 '(으/으)룩'의 관계를 고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2.1 우선 '(으/으)룩'이 쓰인 예들을 통해 이들의 출현 환경을 파악해 보자.

- (3) 가. 地에 오르시니룩 우히라[發地<sub>上</sub>上](원각1: 一之: 63)  
 나. 四禪人으룩 우후 세 님 업수디 그옛 宮殿과 諸天과 혼 穢 냇다가 절로 혼 穢 업느니라(월석 1:50)
- (4) 가. 世尊難值 아래 世間에 나신 本來스 ㅼ들 頌하샤 法 請흐스오시니라 [世尊難值<sub>下</sub>는 頌出世本懷하샤 而請法하시니라](법화 3:184a)  
 나. 그러면 行으룩 아래 아니 滅하리 업스리니 미터 ㅎ마 업슬씨 그티 브룅 더 업스니 이는 修斷相이라(월석 2:22c, 월석 14:37a)  
 다. 그러면 行으룩 아래 다 滅티 아니하리 업스리니 本이 ㅎ마 잇디 아니홀 씨 그티 브룅 띠 업스니 이는 닛가 窟는 相이라[即行<sub>下</sub>下 莫不皆滅하리니 蓋本既不存홀씨 未無所附하니 修斷之相也]라(법화 3:139a)
- (5) 가. 人通으룩 알된 百八十劫을 空히 디나 부테 업스시니[如大通之前에 百八十劫을 空過無佛하시니](법화 1:245b)  
 나. 다 大菩薩스德이시니 地룩 알된 업스니라[持大菩薩之德이시니 地前所無矣]라(법화 1:39)
- (6) 가. 아모 城中에 날 버리다 흠들 네룩 後에 네 이제 다 니즈니라 ㅎ샤물 가 줄비니라(월석 13:30a)  
 가. 아모 城中에 날 버리다 흠들 네 브터 後에 네 이제 다 니즈니라 ㅎ산 가줄요미니[於某城中에 捨吾等者는 自昔之後에 汝今悉忘之譬也]니(법화 2:225a)
- (7) 天地룩 몬져라 그 비르소미 업스며 大地룩 後 라 그 모초미 업스니라[先天地而無其始하며 後天地而無其終하니라](금삼 頌序4a)
- (8) 가. 부테 舍利弗드려 니르샤디 일룩 西方으룩 十萬億 부텃 짜홀 디나가 世界 이쇼디 일후미 極樂이라(월석 7:62)  
 가. 일루브터 西方으룩 十萬億 부텃 짜홀 디나가[從是西方으룩 過十萬億佛土하야 有世界호디 名曰極樂이니](아미 5a- 6)

이 구성에 참여한 선·후행 NP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관계는 후행 명사인 '우후, 아래, 앞, 後, 몬져, 西方'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명사들은 기준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방향의 시공간적 거리를 지시하는 것들로<sup>1)</sup> 기준을 중심으로 서로 대립하며 반의 관계에 있는 명사쌍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은 의미상으로 기준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문장 구성상으로도 기준을 선행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이런 특성이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나타내게 한 것이다. 이를 [NP1+(으/으)롯+NP2] 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2)</sup>

위에서 지적된 특성을 바탕으로 [NP1+(으/으)롯+NP2] 구성의 NP2가 되는 후행 명사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문헌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에서 제시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것은 포함시켰다.<sup>3)</sup>

- (9) ㄱ. 前/後, 앞/뒀, 上/下, 上/아래, 左/右, 왼녘/올흔녘, 內/外, 앞/뒀  
 ㄴ. 몬져<sup>4)</sup>  
 ㄷ. 東/西/南/北

(9ㄱ, ㄴ)의 명사쌍들은 각각 기준을 중심으로 일대일의 대립 관계에 있다. 일차적으로 (9ㄱ)의 명사들은 공간적인 지시를 하는 것들이며 (9ㄴ)의 '몬져'는 시간적인 지시를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9ㄱ)의 '前/後', '앞', '아래' 등은 시간적인 지시로서의 쓰임도 활발하다. 이에 비해 (9ㄷ)의 명사들은 기준을 중심으로 한 다중 대립 관계에 있다.<sup>5)</sup> 하지만 이들도 '東西', '南北'으로 나누어

- 
- 1) 김정아(1993)은 이들을 '기준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시간개념 명사'라고 하였다. 원대성(1985)는 副詞性 명사, 특히 方位性 명사로 보았는데 그의 목록에 '몬져'는 없다.  
 2) 기준이 되는 선행NP의 작용역은 후행NP로 제한되며 이에 의하면 위의 (8)의 '일롯 西方으로'는 '[일롯 西方]+으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8)은 "이쪽으로부터 西方으로"로 보아 '일롯'이 '西方'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3) '內/外', '앞/뒀'과 거의 유사한 의미의 '속/겉'은 이 구성에서의 사용 여부가 의심스러워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4) '나중'은 '몬져'와 의미상으로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용 여부가 불투명해서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몬져'는 명사, 부사로 기능하지만 '나중'은 명사로만 기능하여 그 성격도 약간 다르다 할 것이다. '나중' 대신 '後'가 대립되어 나온 예를 확인할 수 있다.  
 5) 이는 '東西南北'이 개념상으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東'은 '西'뿐만 아니라 '南', '北'과도 대립한다. 원대성(1985)는 '東西南北' 뿐 아니라 (9ㄱ)과 같은 것도 다중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앞'의 경우 '뒤'만이 아니라 '가운데, 위, 아

보면 (9 ㄱ, ㄴ)과 평행하게 일대일의 대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고의 대상이 되는 구성의 핵심 명사들은 기준을 요구하며 그로부터 일정한 방향을 지시하고 기준을 중심으로 대립하는 쌍을 가지는 명사들임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의미상, 문장 구성상 요구하는 기준은 문장에서 이 명사들의 앞에 출현한다. 즉 [NP1+(으/오)롯+NP2]에서 선행 NP가 후행 NP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준은 기준을 요구하는 명사 바로 앞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어서 문장이나 텍스트에서 선행시키기만 하면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이 구성의 핵심 명사들이 의미상으로 기준을 요구하며 또한 그것이 문장에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할 때 본고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 (10) ㄱ. 더 부터 滅度<sub>ㄴ</sub>롯 오미 또 이 數에 너무미 無量無邊百萬億阿僧祇劫이리라[彼佛滅度<sub>ㄴ</sub>來 | 復過是數호미](법화 3:86b-87a)  
 ㄴ. 說法엔 化<sub>ㄴ</sub>호산 因을 불기샤더 오직 成佛<sub>ㄴ</sub>롯 오물 드러 니르시고[但學成佛<sub>ㄴ</sub>來호시고](법화 3:87b)  
 ㄷ. 오직 成佛<sub>ㄴ</sub>호신 後를 드러 니르시고(월석 14:9b)  
 ㄹ. 像季<sub>ㄴ</sub>롯 오매 道述이 호마 吡야 디여[像季<sub>ㄴ</sub>還애 道述이 既裂호야](능엄 1:2)

(10)에서는 [NP1+(으/오)롯+NP2] 구성에서 볼 수 있는 ‘NP+(으/오)롯’을 볼 수 있다. 이 예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동사 ‘오다’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일정한 지점 즉 출발점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각각 ‘滅度’(ㄱ), ‘成佛’(ㄴ), ‘像季’(ㄷ)와 ‘(으/오)롯’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이 출발점은 [NP1+(으/오)롯+NP2] 구성에서의 기준인 NP1과 동일한 것이다. 이처럼 동사 ‘오다’의 경우도 의미상, 문장 구성상 기준점을 요구하는 점과 그것이 ‘(으/오)롯’의 결합을 통해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본고의 대상이 되는 [NP1+(으/오)롯+NP2] 구성과 유연 관계에 있

ㄹ' 와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6)</sup> 이를 [NP1+(으/으)롯+V-n](V=오다)로 정리할 수 있다.

2.2 [NP1+(으/으)롯+NP2] 구성에 참여하는 NP들의 성격을 살폈으니<sup>7)</sup> 이제 NP2의 기준인 NP1에 결합한 ‘(으/으)롯’에 대해 보기로 한다. 아래에서 ‘(으/으)로’만이 결합한 예를 통해서 볼 때 ‘(으/으)롯’은 ‘(으/으)로’와 ‘스’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격조사 ‘(으/으)로’에 대해 생각해 보자.

- (11) 西天은 부터 나신 나라히니 中國으로 西人녀길썌 西天이라 호는나라(월석 1:30)
- (12) ㄱ. 六宮은 호나흔 皇后 | 거시고 다스손 夫人으로 아래 잇는 짜히라(내훈 2상 45a)  
 ㄱ'. 六宮은 호나흔 皇后 계시고 다스손 夫人으로 아래 잇는 곳이라(어재내 훈 2:37b)  
 ㄴ. 일로 아래는 法華 니르쇼서 請호물 正히 니르시니라(월석 14:40b)

- 6) (10)을 넓은 의미에서 [NP1+(으/으)롯+NP2] 구성으로 볼 수도 있다. ‘NP2’가 동사 ‘오다’의 명사형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7) 본고의 대상이 되는 구성과 그에 참여하는 명사들의 성격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 ← ○ → ■  
 (2) ㄱ. ○ → ■ → ■ → ■ → ■ → ■  
 ㄴ. ■ ← ■ ← ■ ← ○ → ■ → ■

(1)은 이 구성의 핵심 명사들의 기본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즉 기준(○)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을 지시하며 일대일 대립 관계에 있는 명사들(■)이다. (2)는 기준을 중심으로 셋 이상의 대립쌍들이 존재할 때의 도식으로 (1)을 확대한 것이다. (2ㄱ)은 기준을 중심으로 일방향의 척도를 이루고 있는 명사들이 ‘기준으로부터의 순서’에 의해 대립하는 것을 보인다. (2ㄴ)은 기준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을 지시함으로 대립하는 것들이 다수인 경우를 보인 것이다. 그 각각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사 ‘오다’가 쓰인 [NP1+(으/으)롯+V-n] 구성은 (2ㄱ)에 해당한다.

- (1') 철수 앞, 철수 뒤  
 (2') ㄱ. 이 집으로부터 여섯번째 집이 우리집이야.  
 ㄴ. 35쪽부터 뒤는 나중에 공부하자.

ㄴ'. 이는 法華 니르삼 請호소오물 正히 펴시니라[此는 正敍請說法華也 |  
라](법화 3:143a)

여기서 (12ㄱ, ㄴ')는 비록 시기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동일 문헌의 언해인데 하나는 '(으/으)롯'으로, 하나는 '(으/으)로'로 언해되어 '스'의 결합 여부에 차이를 보인다. '(으/으)롯'이 쓰일 때와 '(으/으)로'가 쓰일 때는 '스'만큼의 차이가 있겠지만 (11), (12ㄱ', ㄴ)과 같은 예가 적고 이 구성에서 '(으/으)로'와 그것의 결합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으/으)로', '(으/으)롯'이 쓰인 예의 구분이 무의미하기에 여기서는 '(으/으)롯'이 쓰인 예문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 구성에 쓰인 격조사 '(으/으)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동사 '오다'의 명사형을 포함하는 [NP1+(으/으)롯+V-n] 구성에서 암시를 받을 수 있다.

- (13) 더 부터 滅度롯 오미 이ㄴ타 無量劫이어든[彼佛滅度來 | 如是無量劫이어든](법화 3:89b)
- (14) ㄱ. 더 부터 滅度로 오미 甚히 키 오라 머니[彼佛滅度來 | 甚太久遠하니](법화 3:85b)  
ㄴ. 더 부터 滅度호거신 디 甚히 오라고 머니(월석 14:7b)  
ㄴ. 네로 오매 부터 ㄴ르치샤물 님스와[昔來蒙佛教](법화 2:8)

이 예들에서 구격조사 '(으/으)로'는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낸다. 중세국어에서 구격조사 '(으/으)로'는 '수단, 지향, 원인, 자격' 등의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라 출발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8)</sup> 여기에 쓰인 '(으/으)로'와 [NP1+(으/으)롯+NP2]에 쓰인 '(으/으)로'는 같은 것으로 모두 출발점, 기준점을 지시한다.<sup>9)</sup>

8) 중세국어의 구격조사 '(으/으)로'가 '출발점'의 의미를 띠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으/으)로 ~에]의 형태로 주로 '니르다/니를다'를 후행시키는 경우와 동사 '오다'를 후행시키는 경우가 그것이다. 김정아(1993)은 [NP1+(으/으)롯+NP2] 구성에서의 '(으/으)로'를 기준 표시 기능이라고 하였다. 중세국어에는 처격 '에'도 출발점을 지시하는 것이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교회의 '요한복음 4장 5절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에서 출발점 '(으)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9) 후대 예문들에서 이와 동일한 위치에서 '(으/으)로서'로 실현된 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기준을 요구하는 명사들이 문장에 쓰일 때는 어떤 방식이든 기준이 되는 명사를 선행시키기만 하면 문장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는 기본적으로 선행명사들을 아무런 표지 없이 나열하는 방식(하늘 우/벼룩 아래)과 선행명사에 속격조사를 결합시킴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舍利弗스 앞/아바넛 뒤). 단지 기준점을 문장상에서 실현시키는 점만 주의하면 이 두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예들에서는 기준을 나타내는 NP1에 출발점의 ‘(으/으)로’를 결합시켰다. 이렇게 NP1에 ‘(으/으)로’가 결합한 것의 의미를 아래의 예들을 통해 살펴보자.

(15) ㄱ. 菩薩摩訶薩은 菩薩人中에 큰 菩薩을 솔오니 곧 地 우뿔 等覺列이시니  
地로 앞피 아닌 돌 分揀히니라[即地上等覺之列이시니 揀非地前也히니라]  
(법화 1:38)

ㄴ. 尸棄는 大梵天王스 일후미니 初禪三天에 위두히니라 二禪으로 우흔  
말삼미 업쓸찌 大梵天王이 娑婆世界를 그슴아느니라(석상 13:6b)

(15ㄱ)은 “菩薩摩訶薩은…地 위의 等覺列이니 地로부터 앞이 아님을 분간한다(앞과는 분별된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地’를 기준으로 해서 地 위(쪽)과 地를 포함한 나머지가 대립하고 있다(地 위(쪽): 地를 포함한 나머지). (15ㄴ)은 “二禪으로부터 위(쪽)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

이때의 ‘(으/으)로’도 역시 ‘출발점’을 지시하는 구격조사 ‘(으/으)로’이다.

(1) ㄱ. 열두살로서 아리로 어린 거집을 通奸하면 또흔 絞히고[十二歲以下幼女를 通奸則亦絞히고](경민改 15a)

ㄴ. 법스의 뜬 낱로서 몬져 이쇼더 엇다 오기 느즌요(권념 15a)

(2) 나랏 처서므로서 오매 鞍馬 그리리물[國初已來肅鞍馬](두초 16:38a)

10) 위에서 제시된 방식 외에 아래와 같이 기준 명사들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

(1) 領悟 | 身子에서 後는 이 經은 二智를 노겨 어울우논 디라[後於身子者는](법화 2:175a)

(2) 부텃 나라히 中國에서 西스너길씨 西域이라 히느니라(월석 2:65b)

(3) 비록 婢妾이라도 衣服飲食을 받드시 어론의게 後에 히라 히니(가례 2:28b)

으며 마찬가지로 初禪과 二禪을 포함한 나머지가 대립한다(初禪: 二禪을 포함한 나머지). 여기서 ‘(으/으)로부터’은 “(로)부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때 기준인 선행NP가 후행NP가 지시하는 영역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sup>11)</sup>

위에서 지적된 성격을 아래와 같은 예들에서 좀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16)은 ‘初地~七地’와 ‘八地로부터 위 三地’가, (17)은 ‘一行, 二行’과 ‘三行 以上’이 대립하고 있다.<sup>12)</sup> (18)은 다소 다른 방식으로 ‘一地로부터 十地’와 ‘十一地’가 대립하고 있다.

- (16) 가. 初地로부터 七地에 니르리 자핀 煩惱 | 나(원각 상 一之 二 181)  
 나. 八地로부터 우 三地 中엿 修道智 | 能히 끊는나라(八地已上三地中修道智能斷)(원각 상 一之 二 181)
- (17) 가. 일로부터 第二行에 니르리 각각 一品無明을 그츠샤 一分中道를 더으샤 別妙覺과 고크시니라(월석 14:73)  
 나. 三行으로부터 우흔 別敎에 사르미 일혹도 오히려 모르거나 혹몰며 降伏히와 그치리여(월석 14:73)
- (18) 華嚴에 上地로부터 前엔 손지 本智로부터 大悲를 기르고 十一地에 니르러 길은 功이 마츠시면[華嚴에 上地已前엔 猶依本智하야 長養大悲하고 至十一地하야 長養功이 終히시면](능엄 6:41a)

이상 (16)~(18)의 예에서는 기준이 후행명사가 지시하는 영역 내에 놓이느냐 하는 것 외에 이 구성이 지닌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기준인 선행NP는 이와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명사들을 전체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준이 되는 명사와 거의 동격의 명사들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으/

11) 이승녕(1980)에서는 “에서”로 풀 수 있다고 하였다. ‘(으/으)로부터’의 결합으로 위와 같은 의미해석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에서”로 해석할 수 있는, 즉 단순히 출발점이나 기준점의 의미만을 지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 가. 竹林 東녁 古시오 石橋엔 西스너기니(남명 상 35a)  
 나. 竹林 西스너 古시오 石橋론 東녁이라(남명 상 36a)

12) (16나)의 경우 이후에 ‘八地사 우흔 功 업시 運을 맞더 心心이 寂滅하야 自然히 佛地大海에 흘러들시 인후미 조흔 地라(원각 상 一之 二 181b)’가 나오고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으)롯’은 “부터”로 해석되며 기준 명사가 후행명사의 지시 영역 내에 놓이는 일이 많다.

이상과 같은 의미 특질을 보이며 “부터”로 해석되는 ‘(으/으)롯’의 예들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정도의 사용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내용상 선행NP와 같은 부류의 NP들을 전제하는 경우와 본문에서 특정 부분들을 지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 (19) ㄱ. 觀音으롯 아래 다 普賢이어신마론[自觀音已下 | 名普賢之行이어신 마론](법화1:43b-44a)  
 ㄴ. 下界는 아랫 世界니 忉利天으롯 아래로 다 닐은 마리라(월석 1:39a)

(19)는 전자의 예로 (19ㄱ)은 앞의 본문에 “文殊師利菩薩, 觀音菩薩, 得人勢菩薩 … 導師菩薩 等 菩薩摩訶薩 八萬人”(법화 1:39-41)이 나오는데 여기서 ‘觀音으롯 아래’는 文殊師利菩薩을 제외하고 觀音菩薩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에 나열한 보살들이 ‘普賢行’의 면에서 문수사리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9ㄴ)의 경우에는 본문에는 忉利天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도리천과 동계의 명사들이 전제될 수 있어 (19ㄴ)은 “도리천부터 그 밑의 天”을 지시한다.

본문 표현의 일부분을 지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sup>13)</sup>

- (20) ㄱ. 皆舍離苦으롯 아래 未度令度 等を 頌하시니[皆舍離苦已下는 頌未度令度 等하시니](법화 3:39a)  
 ㄴ. 我等志願으롯 아래 즈개 큰 쁘들 슬오사[我等志願下는 自陳大志하시](법화 3:144b)

(20ㄱ)의 ‘皆舍離苦으롯 아래’는 본문의 ‘皆舍離苦하야 得安隱樂과 世間之樂

13) (20)의 예가 본문 표현 그대로를 사용하는 경우인 데 비해 다음 (1)과 같이 핵심 어휘만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八子’는 본문에서는 ‘是諸八王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 八子으롯 아래 傳하야 니스산 전츠를 불기시니라[八子已下는 明傳續之由하시니라](법화 1:125b)

과 及涅槃樂계 호리니를 받는 것이고 (20나)의 ‘我等志願으랴 아래는 ‘我等이 志願 如來入 知見호습노니 深心所念을 佛自證知시니이다’를 받는 것이다. 불경언해에 출현하는 ‘(으/으)랴’의 예는 다수가 (20)과 같이 협주에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것은 요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의 첫 부분에 ‘(으/으)랴’를 결합시켜 ‘아래’라는 명사를 후행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NP1+(으/으)랴+NP2]가 위와 같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전부가 그런 해석을 받는 것은 아니다. (21)의 예들은 “보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1) 가. 하늘히 다 싸호랴 먼저 호며 님금이 하하 먼저 호미 그 빠디 호가지라  
 [天先乎地호며 君先乎臣이 其義一也 | 라](내훈 1:77)  
 가. 하늘히 싸해 먼저 호며 님금이 하하에 먼저 호미 그 뜻이 호가지라(어제내훈 1:63a)  
 나. 오란 劫엿 無명이 다 업스니 하하 먼저며 싸호랴 後 | 라 괴외호야 廖廖호도다(曠劫無명이 俱蕩盡호니 先天後地라 寂廖廖 | 로다)(금삼 3:63b)  
 다. 虛無自然호 큰 道理는 하하 먼저 나니(월석 2:70)

즉 (21가)은 “하늘이 땅보다 먼저 하며(먼저이며) 임금의 신보다 먼저 하며(먼저이며)”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나머지도 동일하게 “보다”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보다”로의 해석이 자연스러운 것은 NP2가 ‘먼저’인 경우가 많다.

[NP1+(으/으)랴+NP2]의 의미를 “부터”로 해석되는 경우와 “보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때 위에서 “부터”의 의미를 띠는 것이 후행명사가 지시하는 의미 영역 안에 선행NP가 포함한다고 하는 것과 충돌이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보다”의 의미일 경우에 후행명사는 그 의미 안에서 선행명사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때 “(으)로부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보다”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이 둘을 어떻게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구격조사 ‘(으/으)로’가 출발점으로 쓰일 경우가 “보다”로 이해되는 경우와 다

른 것이 아니다. “보다”라는 의미는 출발점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sup>14)</sup> [NP1+(으/으)로부터+NP2]는 처음에 선행NP가 기준인 동시에 후행명사의 의미 영역 내에 포함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을 것이나 뒤에 후행 NP에 초점이 놓이면서 선행NP를 배타적으로 제외하면서 “보다”의 의미가 파악되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의해 두 의미의 뚜렷한 경계가 모호해서 “부터”, “보다”의 두 가지 해석 모두가 가능한 예들이 있는 것이다.

2.3 이제는 '(으/으)로부터'의 '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속격조사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으/으)로부터'가 참여하는 구성 속에서 파악되지 못한 점, 동일한 환경에서 '사'이 아닌 '기'이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기'은 첨사(안병희 1967, 이기문 1972), 보조사(안병희·이광호 1990, 김진형 1995), 후치사(서종학 1997)로 이해되어 왔다. 여기서 '(으/으)로부터'와 '(으/으)로부터'가 동일한 구성에 참여하면서도 전혀 다른 범주로 이해되는 것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으/으)로부터'와 '(으/으)로부터'의 '사', '기'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으/으)로부터'가 출현하는 예문들을 살펴기로 한다.

[NP1+(으/으)로부터+NP2] 구성에서도 [NP1+(으/으)로부터+NP2] 구성에서 파악된 “부터”의 의미와 “보다”의 의미의 예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부터”로 해석되는 예부터 보기로 하자.

- (22) ㄱ. 이 迷人아 오늘로부터 後에 이 길홀 ㄴ디 말라(월석 21:119)  
       기'. 오늘부터 後로(월석 21:57)  
       ㄴ. 일로부터 後에 比丘의게 어즈리디 말라(월석 4:31)

14) 현대국어의 ‘부터’는 선행명사구를 포함하는 의미의 ‘부터’와 단순히 기준점만을 지시하며 ‘에서’로 대치 가능한 ‘부터’가 있다. 후자는 주로 ‘수관형사+단위명사’의 결합을 후행시킬 때의 의미이다(2). 중세국어에서도 ‘에서’로 대치 가능한 것이 있다. 주 11) 참조.

- (1) 철수부터 좌측 사람은 우리 방으로 오고 나머지 사람은 동생 방으로 가라.  
 (2) 철수는 창문으로부터 두번째 줄에 앉아 있다.

우리 일록 후에 혼 어의게서 난 동심 형태와 브스 거시 쁘리오(박초 상 72)

ㄴ. 이브터 後에 道 得흐니돌히(법화 3:186b)

(22ㄱ)은 “오늘부터는, 오늘 이후로는” 정도로, (22ㄴ)은 “지금부터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어 해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과 관련된 경우에는 ‘後에’가 생략되는 편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sup>15)</sup>

(23) ㄱ. 호미 메여 아희록 몬져 가(荷鋤先童稚)(두초 18:9)

ㄴ. 鄭李는 時節人 論議에 빗나니 文章은 다 날록 몬져로다(鄭李光時論文 章踰我先)(두초 20:6a)

(23)은 “보다”의 예인데 (23 ㄱ, ㄴ)은 각각 “아이보다 먼저”, “나보다 먼저구나”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으/으)롯’이 쓰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몬져’라는 명사가 쓰일 경우는 “보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4) 가시 허리록 우희 잇거든 밥 아니 머거셔 먹고 허리록 아래 잇거든 밥 머근 후에 머그라(在上食前服 在下食後服)(구간 6:21)

(24)는 기준점에 의해 대립되는 명사(움/아래)가 함께 나온 경우인데 의미해석상 “부터”보다는 “보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허리(로)부터 위”와 “허리(로)부터 아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허리가 ‘위’와 ‘아래’ 양쪽 영역에 포함되어 이중적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다.<sup>16)</sup> 이를 “보다”의 예로

15) [NP1+(으/으)롯+NP2] 구성이 시간과 관련된 경우 ‘後’가 NP2로 나오는 예가 많은데 이때의 ‘後’는 생략해도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다.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시간의 흐름상 해당 시간 이후를 지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방향이 전제되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後’의 존재 여부는 문제가 안 된다(2).

(1) ㄱ. 오늘부터는 삼십 분씩 맨손체조를 하기로 했다.

ㄴ. 그럼 지금부터 한 사람씩 읽어 보자.

(2) ㄱ. 여기부터는 내가 읽을게

ㄴ. 그 장면부터는 재미가 없더라.

볼 때 “보다”의 해석이 NP2가 ‘몬져’일 경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17)</sup>

2.4 중세국어에서 볼 수 있는 [NP1+(으/으)롯/(으/으)룩+NP2] 구성을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5) ㄱ. 各⇒各⇒<sub>3</sub> 亦 座前<sub>7</sub> 花<sub>7</sub> 上<sub>7</sub> 量 無<sub>7</sub> 化佛<sub>7</sub> 有<sub>7</sub> 나<sub>7</sub> 八<sub>7</sub> 分 <舊 1:02:03>

ㄴ. 如來滅<sub>7</sub> 勿<sub>7</sub> 七<sub>7</sub> 後<sub>7</sub> 無<sub>7</sub> 나<sub>7</sub> (화소 35:07:04)

(26) 彼<sub>7</sub> 一<sub>7</sub> 塵<sub>7</sub> 乙<sub>7</sub> 八<sub>7</sub> 內<sub>7</sub> 衆<sub>7</sub> 多<sub>7</sub> 刹<sub>7</sub> 或<sub>7</sub> 有<sub>7</sub> 나<sub>7</sub> (화엄 14:15:10)

위의 (25), (26)은 각각 ‘(으/으)롯’, ‘(으/으)룩’이 쓰인 예로<sup>18)</sup> (26)에서 쓰인 ‘內’는 석독구결에서만 확인되는 명사이다. 이들은 (25ㄱ)이 “座前의 꽃으로부터 위에 헤아릴 수 없는 化佛이 있으며”로 (25ㄴ)이 “如來 滅하심으로부터 후에 없다”로 해석될 수 있다. (26)은 “塵으로부터 안(쪽)의 중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NP1+(으/으)롯+NP2] 구성과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으로

16) ‘(으/으)롯’이 결합한 예에도 이와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 것이 있다.

(1) ㄱ. 受記文이 다 들히니 十號<sub>7</sub> 롯<sub>7</sub> 알<sub>7</sub> 因記<sub>7</sub> 後<sub>7</sub> 是 果記라(월석 13:60b)

ㄴ. 여러 受記文이 다 들히시니 十號<sub>7</sub> 롯<sub>7</sub> 알<sub>7</sub> 因記<sub>7</sub> 뒤<sub>7</sub> 是 果記 뒤<sub>7</sub> 是니라(諸受記文이 皆<sub>7</sub> 二<sub>7</sub> 시니 十號<sub>7</sub> 之前<sub>7</sub> 是 爲<sub>7</sub> 因記시고 後<sub>7</sub> 是 爲<sub>7</sub> 果記시니라)(법화 3:57b)

(1)에서 ‘後’ 앞에 ‘十號’이 생략되었다고 보고 “부터”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 이 경우 “十號로부터 앞”, “十號로부터 後(뒤)”로 해석되어 十號는 因記이자 果記가 되는 것이다. (22)와는 달리 이런 해석이 가능할 듯도 하지만 ‘十號’를 중심으로 그 앞과 그 뒤로 나누어 “보다”로 해석하는 편이 좀더 자연스럽다.

- 17) 물론 현대국어를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중세국어의 예를 통해 볼 때는 위와 같이 ‘몬져’가 아닌 경우가 드물다. ‘몬져’가 아닐 경우 기준을 중심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명사쌍이 함께 쓰일 경우에 주로 “보다”로 해석된다.
- 18) 정재영(1995)는 (26)의 ‘塵乙<sub>7</sub> 八<sub>7</sub>’을 ‘…八형 부사’로 파악하고 이때의 ‘八’을 강세첨사 ‘기’로 보았다.

[NP1+(으/으)롯+V-n](V=오다) 구성을 살핀 바 있는데 석독구결에서도 이와는 다소 다르지만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예가 있다.

(27) 我<sub>1</sub> 無始<sub>2</sub> 已來<sub>3</sub> 飢餓<sub>4</sub> 以<sub>5</sub> 故<sub>6</sub> 身<sub>7</sub> 喪<sub>8</sub> 數<sub>9</sub>  
 無<sub>7</sub> 始<sub>8</sub> 以<sub>9</sub> 來<sub>10</sub> (화엄경소 35:10:08-10)

cf. 無始부터 오매[無始來예](능엄 2:1) 無始世界로 오매 (원각 상 일지이 179b)

이것은 중세국어의 [NP1+(으/으)롯+V-n](V=오다) 구성과 후행 동사의 활용 형에서 차이를 보인다. (27)을 중세국어식으로 표현하면 ‘無始<sub>2</sub>룩 온디’로 풀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無始<sub>2</sub>’을 동사 ‘오다’를 수식하는 부사어 ‘無始<sub>2</sub>’에 첨사 ‘<sub>1</sub>’이 결합된 것으로 간단히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온디’를 동사 ‘오’와 ‘-온디’(-오-+-<sub>1</sub>-+<sub>2</sub>+<sub>3</sub>-<sub>4</sub>-<sub>5</sub>-<sub>6</sub>-<sub>7</sub>-<sub>8</sub>-<sub>9</sub>)의<sup>19)</sup> 결합으로 이루어진 NP 구성으로 보면 (27)은 넓은 의미에서 [NP1+(으/으)룩+V-n](V=오다) 구성에 포함된다. 만일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구성에서 ‘...<sub>2</sub>’의 예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sup>20)</sup>

이상에서 살펴본 중세국어와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예들을 중심으로 ‘(으/으)롯’과 ‘(으/으)룩’의 결합관계를 보도록 하자.<sup>21)</sup>

19) ‘無始<sub>2</sub> 已來<sub>3</sub>’에서 확인되는 ‘-온디’는 중세국어의 ‘-오디’로 이어진다(이승재 1995). 석독구결자료에서는 ‘-오디’로 이어지는 다른 형태인 ‘-올디’도 확인할 수 있다.

20) ‘온디’를 동사 ‘오’에 중세국어의 ‘-오디’로 이어지는 ‘-온디’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위와는 또 다른 방면에서 [NP1+(으/으)롯+V-n](V=오다) 구성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현희(1994:92)에서는 ‘노미그에 브터 사로디 우리 어시 아드리 입게 드와야(석상 6:5)’의 ‘사로디’가 ‘사로매’로 대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위 (27)의 ‘온디’ 역시 ‘오매’와 대체 가능한 구성으로 볼 수 있어 (10ㄷ)의 ‘像季<sub>1</sub> 롯 오매 道<sub>2</sub>述<sub>3</sub>이 한마 띠야 디어[像季已還애 道<sub>2</sub>述<sub>3</sub>이 既裂<sub>4</sub>하야(능엄 1:2)’ 등의 예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다.

21) 도표에서 ◎는 언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이고 ○는 한문 원문을 언해하는 과정에서 ‘롯’과 ‘룩’이 쓰였을 경우 그것을 고려해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문원문이 ‘先天地’이고 이를 ‘天地<sub>1</sub> 롯 문제라(금삼 涵序4a)로 번역한 경우와 ‘在上食前服’를 ‘가시 허리 룩 우회 잇거든(구간 6:21)으로 번역했을 경우 후행명사 ‘先’에 ‘롯’이 실현된 것으로, ‘上’에 ‘룩’이 실현된 것으로 처리했다는 뜻이다.

롯	룩	후행명사
◎	◎	용
◎	◎	아래
◎	○	上
	○	下
◎		앞
◎		前
◎	◎	後
◎	◎	몬져
○	○	先
	◎	內
◎		西方

22)

2.5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 ‘(으/으)롯’과 ‘(으/으)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전에는 이들의 형태만으로 분석하였을 뿐 이들의 출현 환경이 동질적인 점에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서로 관련지어 이해하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 즉 ‘(으/으)롯’과 ‘(으/으)룩’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없이 단정되어 왔다고 해도 할 수 있다. 즉 아래 환경에서의 ‘ㅅ’과 ‘ㄱ’을 고려할 때 ‘(으/으)롯’의 ‘ㅅ’은 속격조사이고 ‘(으/으)룩’의 ‘ㄱ’은 첨사(보조사, 후치사)라는 것이다.

(28) 내 바랏 ्ह 터리롤 ㅁ ㅁ으리나(석상 6:27), 惝慢호 ㅁ슴과 罪와 福곷 이리  
며(석상 19:37)

(29) ㄱ. 어던 工匠이 ㅁ를 저그니(두시 18:19)

ㄴ. 본디룩 舜日옛 ㄴ 簫部ㅅ 소리롤 들더니라(元聽舜日舊簫詔)(두초 13:45a)

중세국어에서의 속격조사 ‘ㅅ’의 존재 뿐만 아니라 (28)의 ‘격조사 에, 과 + 속격 조사 ㅅ’과 동일 선상에서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으/으)롯’도 ‘격조사 (으/으)로’에 ‘속격조사 ㅅ’이 결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ㄱ’을 첨사로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29)의 예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22) 이 도표는 석독구결의 예도 포함시켜 작성된 것이다. 즉 ‘上’, ‘內’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처리는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으/으)롯’과 ‘(으/으)룩’은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정 명사들의 구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때의 ‘시’와 ‘기’은 구성에 참여하는 명사와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도표에서 보듯이 이들이 참여하는 구성의 동질성이 이들에 대한 기왕의 처리를 의심하게 만든다.<sup>23)</sup> ‘시’와 ‘기’을 제외한 모든 요소가 같은 다음 예는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 (30) 혼 중이 俗姓은 陳이오 일후믄 惠明이오 일록 문져 四品將軍이러니[一僧이 俗姓은 陳이오 名은 惠明이오 先是四品將軍이러니](육조 상 35a)  
 (31) 기. 일록 문져 꾸메 혀근 느는 벌에 數 업시 모매 불고[先是 夢有小飛蟲 이 無數赴身호고](내훈 2 상 43b)  
 기. 이 문져 쏜에 저근 느는 벌어지 數 업시 몸애 불고(어제내훈 2:36b)

이들은 지금의 상태가 아닌 이전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는 점에서 의미 해석 상으로도 같다.

‘(으/으)롯’과 ‘(으/으)룩’ 중 이 구성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을 속격조사로 보는 데 있다. 구문의 성격을 결정짓는 후행명사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속격 조사 ‘시’의 존재는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다. 즉 이 구성의 핵심 명사들은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명사들로<sup>24)</sup> 부사이인 ‘NP1+(으/으)로’가 속격의 개재 없이 이들을 수식할 수 있는 것이다.<sup>25)</sup> 특히 (30), (31)과 같이 “보다”

23) 이현희(1994:92)는 구조 전체가 같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성에 참여하는 요소의 대체 가능성을 말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 대해 물론 주의해야겠지만 여기서의 ‘시’, ‘기’은 이런 우려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24) 원대성(1985:45-48)에 의하면 이들은 ‘매우, 상당히, 바로’와 같은 부사들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부사성 명사류’이다.

25) 위에서 처소격조사와 속격조사, 공동격조사와 속격조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엿/엿’과 ‘-꿏/꿏’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들도 구격조사와 속격조사로 볼 수 있음을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 비교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으/으)롯’의 경우 후행명사의 성격에 따라 ‘시’의 필수성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후대형인 현대국어의 ‘(으로)부터’를 통해 살펴보면 (1)의 예에서는 속격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이를 생략하면 비문이 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명사들의 경우는 오히려 속격조사를 사용하면 비문이 되기 쉽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중세국어에



로 해석되는 경우에서 속격의 존재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이와 유연 관계에 있는 [NP1+(으/으)로부터+V-n](V=오다) 구성의 경우에서도 '스'은 속격조사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들의 후대형은 속격표지를 달고 나오는 일이 거의 없으며<sup>26)</sup> 이것은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27)</sup> 출발점으로서의 격조사 '(으/으)로부터'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를 대신하는 형태로 쓰인 '(으)로부터'의 예들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32) ㄱ. 네댓 句는 이제부터 後에 戒 디너 몸 고터 내 餘生을 救흠 곧디 묻다

서는 아래의 예문들과 동일한 유형의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1) ㄱ. \*너는 철수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  
 ㄱ'. 너는 철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ㄴ. \*여기에서 일은 영이에게 절대 비밀이다.  
 ㄴ'. 여기에서의 일은 영이에게 절대 비밀이다.  
 ㄷ. \*영이는 철수로부터 편지를 기다렸다.  
 ㄷ'. 영이는 철수로부터의 편지를 기다렸다.  
 (2) ㄱ. 여기부터 아래는 좀더 밝은 색으로 칠하자.  
 ㄱ'. \*여기부터의 아래는 좀더 밝은 색으로 칠하자.

26) '스'이 결합된 (1)과 같은 예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때 '스'은 속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1)은 이 구성에서 드물게 보이는 속격의 예가 된다. 이런 구성도 (2)처럼 언해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 (1) 木으로브덧 밖은 다 客塵이 드외엿논디[自木之外는 皆爲客塵이룬디](능엄 1:113)  
 (2) ㄱ. 이브터 밖은 느외야 正훈 마리 업스새[自此之外엔 無復正說호사](법화 1:133)  
 ㄴ. 이 밖은 느외야 正히 니르산 마리 업고(월석 11:93b)

(1)을 볼 때 중세국어에서 이 환경에서 속격이 가능하기도 할 듯하나 이때는 후행하는 것이 명사인 점에서 속격조사로 이해된 것으로 또는 한문 원문의 '之'에 이끌린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중세국어의 속격의 분포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더불어 좀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고에서처럼 '스'을 첨사로 보면 구격조사 '(으/으)로부터'가 아닌 환경에서 나온 유일한 '스'의 예가 된다. 이때의 '부터'는 동사 '붙-'에 부사형 어미 '-아/어'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7) 이런 이유에서인지 '로부터'의 '스'을 속격으로 이해한 안병희(1967)에서는 이것에 '중세국어 특유의 용법'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홀시라(남명 하 59b)

이제르브터 後에 사르미 쓰들 알란디(두초 25:22b)

ㄴ. 오늘브터 後엔 나흔 아들기 호리라[自今以後엔 如所生子호리라](월석 13:25a)

ㄷ. 일르브터 後에 諸聲聞衆이 無量無邊호야 드라 헤다 몬호리라[從是已後에 諸聲聞衆이 無量無邊호야 不可稱數러라](법화 3:142a)

ㄹ. 이브터 아래 여러 行을 仔細히 다 그초 드러 니르시니[自下는 諸行을 籤悉히 備舉호시니](법화 1:215b-216a)

(33) 이 오손 네브터 오매 또 값 업스니라(남명 상 37a)

이상과 같은 점에서 ‘(으/으)롯’과 ‘(으/으)룩’의 ‘ㅅ’과 ‘ㄱ’을 서로 다른 범주에 소속시키는 것을 문제 삼고 명사의 성격과 관련하여 ‘(으/으)롯’의 ‘ㅅ’을 속격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으/으)룩’의 ‘ㄱ’을 첨사라고 보는 것은 별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기에<sup>28)</sup> 여기서의 ‘ㅅ’을 ‘ㄱ’과 같은 범주로의 처리를 상정해 보게 된다. 만일 ‘ㅅ’에 대해 새로운 범주를 부여한다면 이는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P1+(으/으)롯/(으/으)룩+NP2] 구성의 ‘ㅅ’과 ‘ㄱ’이 동일 범주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현상이 있다. 즉 부사어 ‘반드기, ‘반드시’, ‘번드기’, ‘번드시’에서의 ‘ㄱ’과 ‘ㅅ’의 교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이기문 1985)<sup>29)</sup>. 이 예 외에도 이런 교체를<sup>30)</sup> 보이는 예는 아래 (34), (35)와 같다.

- (34) ㄱ. 느즈기/느즈시, 느죽하다/느죽하다, 눅죽하다/눅죽하다, 남죽하다/남죽하다, 싸죽하다/싸죽하다, 년즈시/년즈기, 남죽하다/남죽하다  
 ㄴ. 오룩하다/오룩하다

(35) 다뭇/다뭇<sup>31)</sup>

28) ‘(으/으)룩’의 ‘ㄱ’에 대해 다양한 처리가 있어 왔으나 여기서는 일단 첨사로 보는 것이다. 보조사나 후치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들 명칭의 차이가 기능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9) 이기문은 이런 교체가 ‘-s-hA-’형에서의 것임을 지적하였다.

30) 정재영(1995)에서는 ‘ㄱ>ㅅ’의 변화로서 이해하였다.

31) 정재영(1995)의 ‘백버기 이 다 풍긱병이니 다뭇 더운 수레 그라 머기라(신선태을자금단 하 16)’를 가져왔다. (35)도 ‘다뭇하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기문(1985)에서 지적한

(34)는 어근의 예이고 (35)는 부사의 예이다. 석독구결에서도 이런 교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국어 ‘-압/엄 직하다’의 선대형으로 보이는 ‘-ㅅ 可七ㄴ-’(-음짓ㅎ-)와 ‘今√今七’, ‘及√及七’ 등이 그것인데 이들의 환경은 각각 (34), (35)의 환경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예는 동일 범주에서의 ‘ㄱ’과 ‘ㅅ’이 교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 구성에서 ‘ㅅ’이 첨사 ‘ㄱ’과 교체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위에서 ‘ㄱ’, ‘ㅅ’의 교체가 ‘하다’ 앞의 어근 형성과 부사에서의 것이라는 점에서 ‘(으/으)룩’과 ‘(으/으)롯’에서의 ‘ㄱ’과 ‘ㅅ’의 문제는 이들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격조사가 결합한 NP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이런 교체의 범위를 부사적인 것으로 넓혀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2)</sup>

3. 이 글은 중세국어에 흔히 구격조사 ‘(으/으)로’와 속격조사 ‘ㅅ’, 첨사 ‘ㄱ’의 결합으로 이해된 ‘(으/으)롯’, ‘(으/으)룩’의 출현 환경과 의미가 동질적인 것에 주목하여 이들이 구성하는 [NP1+(으/으)롯/(으/으)룩+NP2]의 제반 요소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위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NP1+(으/으)롯/(으/으)룩+NP2]는 기준을 전제로 하여 그로부터 일정한 방향을 지시하는 명사들에 의해 결정된 구성이다. 이들 명사들은 NP2로 나타나는 데 이에는 ‘前/後, 앞/뒀, 上/下 傭/아래, 먼저, 東/西/南/北’ 등이 해당한다.

‘-s-ha-’형에서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근 자체가 부사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34)의 예들과는 차이가 있다.

32) ‘(으/으)롯’과 유사하게 속격처럼 보이지만 부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예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ㄱ. 오늘날 眞實스 이 佛子 | ㄹ[眞是佛子 | ㄹ](법화 2:8a)  
 ㄴ. 여러 가짓 소리 眞實스 더와 피릿 소리 곁도소니(두초 6:1b)  
 ㄷ. ㅎ다가 眞實스 네 므스민덴 나미 업스리어늘 엇대 소리 여희여든 分別이 性이 업스뇨(능엄 2:24)  
 cf. 다 眞實로 信호야 아로물 물 호느니(석상 9:28)

(2) 이 명사들이 의미상, 문장구성상 요구하는 기준은 이 명사들에 앞서 NP1으로 실현된다.

(3) ‘(으/으)롯’, ‘(으/으)룩’은 ‘(으/으)로’와 ‘스’, ‘기’으로 분석되는데 여기서 ‘(으/으)로’는 출발점을 지시하는 구격조사이다.

(4) ‘(으/으)롯’, ‘(으/으)룩’의 ‘스’과 ‘기’은 교체 관계에 있는 첨사이다. 여기서 ‘스’은 [NP1+(으/으)롯/(으/으)룩+NP2] 구성의 핵심 명사들(NP2)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준처럼 속격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5) 이 구성이 보여주는 의미는 크게 “부터”와 “보다”로 볼 수 있다. 두 의미가 다소 상충되는 일면이 있으나 파생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부터”로 쓰일 경우 명사들은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예들이 많으며 “보다”의 경우 후행명사가 ‘문저’인 예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구성의 ‘(으/으)룩’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사용된 첨사 ‘기’의 경우 위에서 처럼 ‘스’과의 관련성을 지적할 수 없다는 점이 본고와 같이 ‘스’을 첨사 ‘기’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입장이 당연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연 이와 같은 구성에서 속격의 실현이 불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속격을 상정할 경우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틀림이 없다. 이 밖에도 이때의 ‘기’의 정확한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점, ‘기’과 ‘스’ 교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도 구격조사 ‘(으/으)로’와 속격조사 ‘스’으로 너무 단정적으로 이해된 ‘(으/으)롯’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부족을 면책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참고문헌

- 김정아(1993), <15세기 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진형(1995), <중세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36.

- 남풍현(1972), <두시언해 주석문의 '-로'에 대한 고찰>, 《논문집》 6(단국대).
- 남풍현(1975), <한자차용표기법의 '元'字攷>, 《국어학》 3.
- 박치원(1995), <한국어 명사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논항구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종학(1983), <중세국어 '브터'에 대하여>, 《국어학》 12.
- 안병희(1967), <문법사>, 《한국어발달사》(중), 한국문화사대계 V,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안병희(1968), <중세국어의 속격어미 '-스'에 대하여>,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원대성(1985), <명사의 상적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65.
- 이광호(1985), <격조사 {로}의 기능통합을 위한 시론-{로}는 수단격 조사이다->, 《선오당 김형기선생 팔절기념논총》.
- 이기문(1985), <국어 어휘사의 한 측면>, 《역사언어학》(김방한선생회갑기념논문집), 전예원.
- 이남순(1983), <'에'와 '로'의 통사와 의미>, 《언어》 8-2.
- 이승녕(1980), 《중세국어문법-15세기어를 중심으로》, 을유문화사.
- 이승녕(1985), <'-센', '-센녀'고>, 《선오당 김형기선생 팔절기념논총》.
- 이승욱(1966), <후치사의 통사론적 고찰>, 《동아문화》 6.
- 이승재(1995), <동명사어미의 역사적 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소곡 남풍현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이현희(1987), <중세국어 '돌겁-'의 형태론>.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임흥빈(1974), <{로}와 선택의 양화사>, 《어학연구》 10-2.
- 정재영(1995), <'ハ'형 부사와 '七'형 부사>, 《국어사와 차자표기》(소곡 남풍현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최규련(1997), <'밖에/외에'의 의미와 '밖에/외에+부정(否定)의 의미'>, 24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
- 홍윤표(1978), <방향성 표시의 격>, 《국어학》 6.
- 홍윤표(1981), <근대국어의 처소표시와 방향표시의 격>, 《동양학》 11.
- Croft(1991),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 the univ. of

chicago press.

Lyons(1977), semantics, cambridge univ. press.